
노년의 존엄과 돌봄의 재구성 - 휴머니티드의 관계적 인간관을 중심으로

송인실 (한국시니어융합연구소, 소장)

〈목 차〉

- I. 서론
- II. 노년 담론과 돌봄의 인간관
- III. 존엄 개념의 재정초
- IV. 휴머니티드와 존엄 중심 돌봄
- V. 존엄 중심 돌봄의 실천적 함의
- VI. 결론

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 노년 돌봄은 기능 유지와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인은 관리의 대상으로 대상화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능 중심 돌봄 담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존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돌봄 관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노년 담론과 돌봄 체계 속에서 기능 중심 인간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구조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누스바움·테일러·키트우드·트론토의 논의를 바탕으로 존엄을 인간 존재 자체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가치로 재정립하였다. 셋째, 휴머니티드의 네 가지 기둥을 일상의 돌봄 장면에서 존엄을 구현하는 실천 원리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존엄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이 돌봄 종사자 교육, 장기요양 평가 지표 재설계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연결되며, 돌봄의 질을 관계 경험과 삶의 의미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키워드 : 존엄, 노년 돌봄, 휴머니티드, 인간중심돌봄, 초고령사회

1. 서론

현대사회에서 노년은 오랫동안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규정되어 왔다. 고령화가 사회적 위험과 부담의 언어로 설명되면서 노년은 보호와 관리의 틀 속에서 이해되었고, 노인의 삶은 기능 저하와 의존의 문제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노년을 생애의 한 단계라기보다 사회가 관리해야 할 존재로 대상화하며, 돌봄을 제도적 관리 체계로 환원할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로 복지와 의료 체계는 노인을 연령, 질병 유무, 기능 수준과 같은 측정 가능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돌봄 역시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제도적 관행의 결과가 아니라 노년 돌봄에 내재한 인간관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한다. 노년 돌봄 담론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돌봄 서비스의 양이나 제도적 효율성에 있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는가라는 인간관에 있다. 근대 이후 형성된 기능 중심 인간관은 인간의 가치를 수행 능력과 연결시키는 경향을 낳았으며, 이는 노인의 존엄을 조건부 가치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노년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엄 개념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가. 둘째, 이러한 존엄 개념은 노년 돌봄의 인간관과 실천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가. 셋째, 존엄 중심 돌봄은 실제 돌봄 장면에서 어떠한 원리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노년 돌봄을 인간관의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존엄을 중심으로 한 돌봄의 새로운 이해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논의를 축적해 왔다. 노년학과 사회이론 연구에서는 캐럴 에스테스와 엘리자베스 비니(Carroll L. Estes and Elizabeth A. Binney)의 생의학화 비판과¹⁾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생명정치

1) Carroll L. Estes and Elizabeth A. Binney (1989), "The Biomedicalization of

개념을²⁾ 중심으로 노년이 의료·복지 체계 및 근대 권력 구조 속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구성되어 온 방식을 분석해 왔다. 정치학과 윤리학에서는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역량 접근을³⁾ 토대로 존엄을 현재의 기능 상태가 아닌 인간 존재 자체의 가치로 이해하려는 논의와,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인정 이론을⁴⁾ 기반으로 존엄을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형성되는 가치로 재정립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돌봄 윤리 연구에서는 조안 트론토(Joan C. Tronto)를 중심으로 돌봄을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 관계 실천으로 이해하고, 취약성과 의존을 인간 삶의 보편적 조건으로 재해석하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⁵⁾

그러나 이러한 선행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한계를 지닌다. 존엄 중심 돌봄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존엄 개념이 실제 돌봄 장면에서 어떠한 구체적 원리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휴머니튜드(Humanitude)에 주목한다. 휴머니튜드는 존엄을 추상적 규범으로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라는 네 가지 기동을 통해 존엄을 일상적 돌봄 장면의 가장 작은 상호작용 수준에서 구현하는 실천 원리를 제시한다.⁶⁾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 논의의 이론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존엄 개념을 돌봄의 실천 언어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Aging: Dangers and Dilemmas,” *The Gerontologist*, 29(5), pp. 587~589.

- 2) Michel Foucault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Pantheon Books, pp. 135~159.
- 3) Martha C. Nussbaum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3~34.
- 4) Charles Taylor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5~73; Taylor (1989), *Sources of the Self*,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8~29.
- 5) Joan C. Tronto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8~24.
- 6) Yves Gineste and Rosette Marescotti (2019), 『휴머니튜드 혁명』, 이인숙, 진영란, 이윤정, 임은실(번역), 대광의학, 140쪽. 지네스트와 마레스코티는 이 네 가치를 돌봄 제 공자와 대상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 상호작용 원리로 설명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 중심 돌봄 담론에 내재한 인간관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년의 존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돌봄 관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노년 돌봄을 단순한 복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이해의 문제로 재조명함으로써, 돌봄 담론이 지닌 인문학적 성격과 그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함께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년 담론과 돌봄 체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인간관의 문제를 검토하고, 존엄 개념을 기능 중심 이해에서 벗어나 존재와 관계의 차원에서 재정립한다. 이어 이러한 존엄 개념을 실제 돌봄의 원리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휴머니티드가 제시하는 돌봄 철학을 분석하고, 노년 돌봄을 기능 중심 관리에서 존엄 중심 관계 실천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노년 담론과 돌봄 윤리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철학적 개념 분석과 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휴머니티드의 철학적 배경과 핵심 원리를 문헌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년 돌봄의 인간관과 실천 원리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에스테스·비니의 생의학화 비판과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토대로 노년이 관리의 대상으로 구성되어 온 담론적 맥락과 기능 중심 돌봄 체계의 한계를 분석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누스바움·테일러·킵트우드·트론토의 논의를 토대로 존엄 개념을 존재와 관계의 차원에서 재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IV장에서는 휴머니티드의 철학적 인간관과 네 가지 돌봄 원리를 분석하고, 존엄을 일상의 돌봄 장면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구조를 살펴본다. V장에서는 휴머니티드 관점에서 노년 돌봄의 미시적 상호작용과 존엄 중심 돌봄의 실천적 함의를 검토하며, VI장에서는 주요 논의를 정리하고 노년 돌봄의 인간관 전환이 갖는 이론적 의의를 제시한다.

II. 노년 담론과 돌봄의 인간관

1. 고령화 사회와 노년 담론의 형성

노년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는 과정은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노년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조직할 것인가라는 담론 형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 인구의 확대는 노년을 사회 정책과 제도의 핵심 영역으로 끌어들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노년은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범주로 의미화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담론 구조 속에서 노인의 경험과 감정, 삶의 의미는 제도적 언어 속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 복지와 의료 제도는 노년을 생애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을 제도적 범주와 수치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다. 한국 사회의 공적 노년 담론은 노년을 활동성, 독립성, 자기관리 능력과 같은 기준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노화된 몸과 돌봄의 일상을 실패나 쇠퇴의 징후로 해석하게 만드는 담론 구조를 형성한다.⁷⁾ 또한 노인의 돌봄 이용 역시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적 맥락보다는 건강 상태나 기능 수준과 같은 제도적 평가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⁸⁾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에스테스와 비니의 생의학화 개념은 이러한 담론 구조가 단순한 의료적 관행이 아니라 노년의 삶 전반을 생물학적 범주와 측정 가능한 지표로 재편하는 권력 구조임을 보여준다.⁹⁾ 특히 그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인이 치료와 관리의 대상으로 위치 지워지며, 노년기 삶의 의미와 관계적 경험이 제도적 언어 속에서 제대로 담기지 못한 채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난다는 점을 강조하였

7) 권수현 (2019), 「노년의 삶과 정체성」, 『철학연구』, 149, 1~28쪽.

8) 이상우 (2022), 「노인의 돌봄 자원 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3), 345~348쪽.

9) Estes and Binney (1989), pp. 587~589. 에스테스와 비니는 생의학화를 의료화의 심화된 형태로 이해하며, 노년의 삶이 단순히 질병으로 규정되는 것을 넘어 생물학적인 지식과 기술 전반에 의해 재구성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다.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은 노년 담론의 문제가 단순히 의료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근대 국가가 인구를 관리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¹⁰⁾ 생명정치적 관점에서 노년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이중적으로 조직되며, 돌봄 역시 이러한 관리 체계의 일부로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에스테스·비니와 푸코의 논의는 노년 돌봄 담론이 기능 중심 인간관을 내재화해 온 구조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본 연구의 비판이 단순한 제도적 관행이 아니라 이러한 담론 구조 자체임을 분명히 한다. 이것이 실제 돌봄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2. 기능 중심 돌봄과 노년의 대상화

앞서 살펴본 담론 구조는 실제 돌봄 체계의 구성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의료와 복지 제도는 노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수준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배분하고, 돌봄의 목표 역시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 접근은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이면서도, 동시에 노년을 관리의 대상으로 조직하는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 결과 노인은 돌봄의 고유한 주체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기능 수준에 따라 분류되는 대상으로 이해되기 쉽다. 실제로 현행 장기요양 평가 체계는 신체 기능 수준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노인이 돌봄 과정에서 어떠한 관계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유지하는가는 평가의 시야 밖에 놓이게 된다. 돌봄의 성과 역시 기능 수준의 유지나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측정되며, 노인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느끼는가는 평가 항목에 포함되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돌봄 제공자 역시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서비스 항목을 수행하는 기술적 행위자로 이해되는 방식이

10) Foucault (1978), pp. 135~159. 푸코는 생명정치를 근대 국가가 인구의 건강과 수명을 관리·조절하는 권력 기술로 설명하며, 이 틀 속에서 보호와 통제는 분리되지 않는 이중적 구조로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강화된다. 돌봄이 표준화된 절차와 시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수록, 그들이 노인의 개별적 상황과 감정에 반응할 여지는 점점 좁아지게 된다. 또한 돌봄 현장에서는 ‘할 수 있음/없음’의 기준이 일상적인 판단 척도로 작동하며, 이는 돌봄 관계 속에서 위계적 구조를 고착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돌봄 제공자는 도움을 주는 위치에, 노인은 도움을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 속에서 노인은 자신의 선호와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판단과 절차에 따르는 수동적 존재로 경험될 수 있다. 돌봄이 기능 회복과 위험 예방을 목표로 조직되는 한, 노인의 존엄은 능력의 유무에 따라 조건부로 인정되는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노년기의 취약성과 의존이 인간 존재의 한 양상이라는 사실보다 관리해야 할 상태로 이해되는 담론 구조와도 연결된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제도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기능 수행 능력과 동일시하는 인간관이 돌봄 체계 속에 내재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의 방식을 바꾸기 이전에 그 인간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역사적·철학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노년 돌봄 담론과 인간관의 문제

노년 돌봄에 내재한 기능 중심 인간관은 단순히 제도적 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근대 이후 형성되어 온 특정한 철학적 전통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근대 계몽주의 이후 인간은 이성적 판단 능력과 자율적 의지를 갖춘 주체로 이해되어 왔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전통에서 인간의 존엄은 바로 이러한 이성적 자율성에 근거하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별하는 핵심 기준으로 이해되었다.¹¹⁾ 이러한 이성 중심 인간관은 자율적 판단과 자기결정이 가능한 인간을 존엄의 주체로 상정함으로써, 역으로 이러한 능력이 약화된 존재를 존엄의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게 만

11) Immanuel Kant (178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in *Kants gesammelte Schriften*, Bd. IV, Königlich Preuß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p. 428~429.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기초』에서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정언명령을 통해 존엄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드는 논리적 구조를 내포한다. 노년기의 신체적·인지적 변화는 바로 이 구조 속에서 존엄의 약화 혹은 상실로 해석될 위험을 안고 있다. 나아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전개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과 경제적 기여 능력과도 결부되어 이해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기능 중심 인간관은 노화에 따른 변화를 곧 인간 가치의 감소로 해석하는 담론 구조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돌봄 담론은 노년을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인간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기능 중심 패러다임 속에서 노인의 존엄은 수행 가능한 능력의 수준에 따라 조건부로 평가되는 구조에 머물게 된다.

결국 기능 중심 인간관의 한계는 노년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인간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노년기의 변화는 단순히 기능의 감소로 환원될 수 없는 삶의 과정이다. 기능이 약화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경험하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살아간다. 인간의 가치를 능력과 성취로 측정하는 시각은 노년기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에 본질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결국 노인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는가라는 인간관의 문제로 귀결된다. 노년 돌봄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려면 이러한 인간관 자체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제도 설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존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이며, 따라서 존엄 개념 자체를 기능 중심 이해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와 관계의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III. 존엄 개념의 재정초

1. 기능 중심 존엄 개념의 한계

존엄(dignity)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가치로 이해되며, 현대 규범적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

러나 존엄은 선언적 규범으로 천명되면서도 실제 사회 담론과 제도 속에서는 자율성, 생산성, 자기통제 능력과 같은 기능 수행 능력과 결부되어 이해되는 방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간극은 존엄 개념 자체가 이미 기능 수행 능력에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즉 존엄은 인간 존재 자체에 근거한 가치로 선언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온전히 적용되는 제한된 가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조건부 적용은 노년기의 변화를 곧 인간 가치의 감소로 해석하는 담론 구조와 맞닿아 있으며, 존엄이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능 중심의 존엄 개념은 근대 이후 복지 제도와 사회 정책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왔다. 복지 제도는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수행 능력과 자립 여부를 핵심 척도로 삼아왔으며, 이는 존엄을 자립적 수행 능력과 연결시키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고착시켰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는 스스로를 온전히 돌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엄의 완전한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제도적 자원의 배분은 개인이 얼마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범주에서 벗어난 존재는 지원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주체성이 축소된 존재로 다루어지기 쉽다. 그 결과 존엄은 추상적 규범으로 선언되면서도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노년기 돌봄의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년기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능 중심 인간관은 중요한 문제를 드러낸다. 노년기의 변화는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닌 삶의 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존엄을 능력과 동일시하는 관점 속에서는 이를 곧 상실이나 의존 상태로 해석하기 쉽다. 그 결과 존엄이 능력의 수준에 따라 평가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을 능력 중심으로 이해할 때 발생하는 이론적 한계를 보여준다. 인간은 특정 능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을 때만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관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존엄 개념을 기능 중심의 이해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 자체의 가치로 재정립하려는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노년 돌봄의 문제를 넘어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인간관 자체의 전환을 요청하며,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고찰한다.

2. 존재 중심 존엄 개념

기능 중심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존엄을 인간의 능력이나 성취와 분리된 존재적 가치로 이해하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 관점에서 핵심은 존엄의 근거를 수행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찾는다는 데 있다. 누스바움은 공리주의와 롤스식 계약론이 합리적 판단 능력을 암묵적 전제로 삼음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이 능력이 약화된 존재를 정의의 주체에서 배제할 위험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역량 접근은 인간의 존엄을 현재 기능 상태가 아닌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과 조건이 얼마나 보장되는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²⁾ 다만 누스바움의 접근이 ‘중심적 역량 목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량의 종류와 수준을 기준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구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에바 페더 키태이(Eva Feder Kittay)는 의존적 존재를 역량 목록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여전히 기능 중심 인간관의 잔재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¹³⁾

본 연구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현재의 기능 상태가 아닌 삶의 가능성과 조건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한정하여 참조한다. 여기서 지향하는 존엄의 재정립은 역량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와 관계적 경험에 근거를 두며, 이는 이후 논의할 휴머니튜드의 인간관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12) Nussbaum (2011), pp. 17~34.

13) Eva Feder Kittay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pp. 105~107.

존엄을 존재적 가치로 이해하는 관점은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기능 중심 인간관에서는 이것이 인간 능력의 결핍이나 실패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존재 중심 관점에서는 이를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관점을 돌봄 윤리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한 것이 트론토의 논의이다. 트론토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전제함으로써, 인간 삶에서 돌봄이 차지하는 근본적 역할을 은폐하고 돌봄을 사적 영역이나 여성의 역할로 주변화해 온 구조를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으며 생애 전반에 걸쳐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취약성과 의존은 인간 삶의 예외적 상태가 아니라 보편적 조건임을 강조하였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은 단순한 개인적 덕목이나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정치적·윤리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돌봄의 질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여부보다 돌봄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대우받았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노년 돌봄을 기능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윤리의 문제로 재정립하도록 만든다.

3.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엄

존엄을 존재 자체에 근거한 가치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이론적 전환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존엄은 인간 내부에 고정된 속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되는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 존재인지 여부를 경험하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테일러는 근대 이후 인간의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

14) Tronto (2013), pp. 18~24. 트론토는 인간을 주로 시장의 존재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비판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다는 역사적 전환에 주목하였다. 그는 루소와 헤르더의 진정성 개념을 추적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대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타인의 인정은 단순한 사회적 승인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경험하기 위한 근본적 조건이 된다.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존재로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경험할 수 있으며, 역으로 인정이 부재하거나 왜곡될 때 정체성과 존엄 경험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 노년 돌봄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계적 존엄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톰 키트우드(Tom Kitwood)는 1980~90년대 영국의 치매 돌봄 현장을 관찰하면서,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불안, 공격성, 위축과 같은 문제 행동이 질병 자체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돌봄 환경과 상호작용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는 돌봄 제공자가 치매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관리의 대상으로 다룰 때 환자의 존엄과 정체성이 훼손되는 현상을 ‘악성 사회심리(malignant social psychology)’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람됨(personhood)’ 개념은 인간의 존엄을 인지 기능의 수준이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시선, 언어, 접촉 방식과 같은 관계적 환경 속에서 유지되거나 훼손되는 가치로 이해한다. 사람됨은 인간 내부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정되고 유지되는 지위이며, 이러한 관점은 존엄을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돌봄의 매 순간 형성되는 관계적 경험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¹⁶⁾

이러한 관점은 IV장에서 살펴볼 휴머니튜드의 인간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휴머니튜드 역시 사람됨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관계적 실천으로 이해하며, 돌봄 제공자의 구체적 행위 방식이 바로 이 사람됨을 경험하게

15) Taylor (1994), pp. 26~36. 테일러의 인정 이론은 *Sources of the Self*(1989)에서 정체성의 대화적 형성 논의로 전개되고, “The Politics of Recognition”(1994)에서 인정의 정치적·사회적 함의로 심화된다.

16) Tom Kitwood (1997), *Dementia Reconsidered: The Person Comes First*, Open University Press, pp. 54~69.

하거나 훼손하는 핵심 계기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키트우드의 사람됨 개념은 존엄을 관계적 가치로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이자, 이를 돌봄의 미시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존엄은 인간 존재 자체에 근거한 가치이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휴머니튜드가 존엄을 일상 돌봄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분석한다.

IV. 휴머니튜드와 존엄 중심 돌봄

1. 휴머니튜드의 형성과 철학적 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 중심 돌봄 체계는 노인의 삶을 제도적 기준과 평가 지표로 조직하며, 돌봄을 윤리적 관계라기보다 위험을 관리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기술적 행위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존엄을 인간 존재와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요구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 철학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휴머니튜드이다. ‘휴머니튜드(Humanitude)’라는 명칭은 인간을 뜻하는 ‘Human’과 태도를 뜻하는 ‘Attitude’의 합성어로, 인간다움을 향한 태도 혹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¹⁷⁾ 돌봄은 무엇을 해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어떠한 존재로 대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휴머니튜드는 이 태도를 돌봄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휴머니튜드는 프랑스의 돌봄 전문가인 이브 지네스트(Yves Gineste)와 로젯 마레스코티(Rosette Marescotti)가 치매 및 중증 노인 돌봄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돌봄 철학이다. 기존 의료 중심 돌봄이 환자의 거부, 불안, 공격 행동을 질병의 불가피한 증상으로 이해하고 통제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면, 휴머니튜드는 이를 상호작용의 결과로 재해석한다. 지네스트와 제롬 펠리시에(Jérôme Pellissier)는 문제 행동이 질

17) Gineste and Marescotti (2019), 6쪽.

병 자체라기보다 돌봄 방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돌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미세한 행위들이 관계 형성의 핵심 매개임을 강조하고, 수행 방식에 따라 돌봄 경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차이는 존엄의 유지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 되며, 돌봄이 결과 중심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임을 보여준다. 휴머니튜드는 돌봄을 개입이나 처치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관계적 사건으로 재이해하며, 상호작용의 질을 돌봄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다.¹⁸⁾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돌봄을 질병 관리의 기술적 행위에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윤리적 실천으로 재정립한다. 휴머니튜드는 앞서 논의한 존엄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기능이 아니라 존재와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관점을 돌봄 실천으로 연결함으로써, 돌봄의 목적이 기능 유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엄을 경험하는 데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휴머니튜드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관계적 인간관을 돌봄의 언어로 구체화한 실천 틀이라 할 수 있다.

2.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보는 관점

휴머니튜드의 핵심 인간관은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은 테일러의 인정 이론이나 키트우드의 사람됨 개념과 맥락을 공유하지만, 휴머니튜드는 이를 돌봄 현장의 가장 작은 상호작용 수준에서 구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인간이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존재임을 전제한다. 이러한 인간관은 추상적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시선, 목소리, 접촉, 자세와 같은 구체적 행위를 통해 실천으로 번역된다. 휴머니튜드는 관계 맺음의 방식을 돌봄의 핵심으로 이해하며, 돌봄 제공자의 행위가 노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 수

18) Yves Gineste, Rosette Marescotti, and Jérôme Pellissier (2008), "L'humanité dans les soins," *Recherche en soins infirmiers*, 94, pp. 42~55.

도, 존엄한 존재로 경험하게 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돌봄 제공자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조율하는 존재이며, 돌봄은 일방적 개입이 아니라 만남의 과정으로 재구성된다. 이때 돌봄의 질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노인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 행위를 설명하는 습관,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와 같은 작은 상호작용은 노인이 자신을 존중받는 존재로 경험하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관계를 형성하는 윤리적 실천으로서 돌봄 경험의 방향을 규정하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진다. 신체 기능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자율성이 약화되는 시기일수록, 존엄은 개인 내부의 능력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경험된다. 따라서 존엄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확인되는 경험적 가치이며, 이는 돌봄이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돌봄의 목표가 기능의 회복을 넘어, 관계 속에서 의미와 존재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있음을 시사하며, 돌봄이 노년기 삶의 지속성과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3. 존엄을 구현하는 돌봄의 네 가지 기둥

휴머니티드는 인간의 존엄을 돌봄의 구체적 실천으로 구현하기 위해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라는 네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이는 돌봄 장면에서 발생하는 대상화를 차단하고 관계적 만남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 원리로, 돌봄의 매 순간을 존엄의 실천 장면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조건이 된다.

첫째, 보다(Gaze)이다. 시선은 돌봄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는 관계적 신호이다. 푸코가 지적하듯 근대 의료 체계에서 시선은 환자의 몸을 관찰하고 분류하는 권력의 도구로 기능해 왔으며, 이러한 임상적 시선 속에서 환자는 관찰되는 몸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¹⁹⁾ 휴머니티드에서 강

19) Michel Foucault (1963), *Naissance de la clin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조하는 눈 맞춤은 이러한 일방적 관찰의 시선을 상호적 인정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눈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를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신호이며,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돌봄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말하다(Speech)이다. 돌봄 상황에서 언어는 쉽게 통제와 지시의 도구로 작동한다. ‘이렇게 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와 같은 지시형 언어는 노인을 돌봄 과정의 수동적 수혜자로 위치 짓는다. 휴머니티드에서 강조하는 말하기는 이러한 방식과 구별된다. 이름을 부르고, 앞으로 할 행위를 미리 설명하며, 반응을 기다리는 과정은 노인을 돌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위치 짓는 핵심 조건이 된다. 테일러가 강조하듯 인간은 대화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을 경험하며, 이러한 점에서 돌봄 상황에서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존엄을 형성하거나 훼손하는 관계적 장치로 이해된다.

셋째, 만지다(Touch)이다. 돌봄에서 접촉은 필수적인 행위이지만, 접촉이 단순한 기능 수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몸은 쉽게 대상화된다. 반대로 예고된 접촉과 존중의 손길은 신뢰와 안전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안정시킨다. 키트우드도 강조하듯 사람됨은 관계적 환경 속에서 유지되며, 접촉의 방식은 노인이 자신을 존중받는 존재로 경험하는가, 아니면 관리되는 몸으로 인식되는가를 가르는 계기가 된다.

넷째, 서다(Verticality)이다. 휴머니티드는 직립을 단순한 신체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과 긴밀히 결부된 경험으로 이해한다.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가 강조하듯 신체는 세계를 향한 지향적 존재이며, 직립 자세는 인간이 공간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능동적 주체로 자리하는 방식과 연결된다.²⁰⁾ 눕거나 앉은 자

France; 영역본: *The Birth of the Clinic: An Archaeology of Medical Perception*, Vintage Books, 1973, pp. 107~122.

20) Maurice Merleau-Ponty (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pp. 160~165. 메를로-퐁티는 신체를 단순한 생물학적 기관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가 열리는 장으로 보며, 인간의 지각과 운동이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고 설명한다.

세가 장기화될수록 수동성이 강화되는 반면, 서 있는 몸은 시선의 높이와 관계 구조를 변화시키며 주체성을 회복하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러한 점에서 직립 경험을 가능한 범위에서 포함시키는 돌봄은 단순한 재활 목표가 아니라 노인이 다시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 맺도록 돕는 존엄 중심 실천이다.

이 네 가지 원리는 서로 독립된 기술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시선이 열리고 언어가 이어지며 접촉이 더해지고 직립이 가능해지는 순간, 노인은 돌봄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경험된다. 중요한 것은 이 원리들이 단순한 친절이나 서비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는 가라는 인간관의 문제가 돌봄의 가장 작은 몸짓 수준에서 구현되는 방식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휴머니티드는 존재와 관계 중심의 존엄 개념을 실천의 언어로 전환하며, 돌봄을 기능 중심 관리에서 인간을 한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적 실천으로 재구성하는 이론적·실천적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구성은 노년 돌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V. 존엄 중심 돌봄의 실천적 함의

1. 돌봄의 미시적 상호작용과 존엄 경험

휴머니티드는 인간의 존엄을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일상적 돌봄 장면 속에서 경험되는 관계적 사건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의 핵심은 ‘무엇을 제공하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가’에 있다. 시선, 언어, 접촉, 자세와 같은 미시적 상호작용은 돌봄 상황에서 노인이 자신을 존중받는 존재로 경험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돌봄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작은 행위들의 축적은 노년기 삶에서 경험되는 존엄의 수준을 형성한다. 기존의 노년 돌봄 체계는 효율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은 일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로 이해되기 쉽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인은 돌봄의 주체라기보다 관리의 대상으로 경험될 위험이 존재한다.

휴머니티드는 이러한 구조를 재조정하여 돌봄의 출발점을 관계 형성의 순간으로 이동시킨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단순한 기법의 적용이 아니라는 데 있다. 돌봄의 매 순간 이루어지는 작은 행위들의 반복적 축적이 노년기 삶에서 존엄이 경험되는 방식 자체를 구성한다.²¹⁾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국내 실천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하에서 제시하는 연구는 본 연구의 이론적 주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근거라기보다 경험적 참조점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국내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는 휴머니티드 실천 과정에서 돌봄 제공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관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하며, 존엄 중심 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시사한다.²²⁾ 결국 존엄은 돌봄 이후에 평가되는 결과라기보다, 돌봄이 이루어지는 매 순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실천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2. 관계적 돌봄의 실천 윤리

돌봄을 관계적 실천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돌봄의 윤리를 새롭게 사유하게 한다. 전통적으로 돌봄은 취약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지원 행위로 이해되어 왔지만, 돌봄 윤리 연구는 돌봄을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 관계 실천으로 이해한다. 앞서 살펴본 트론토의 논의가 보여주듯 돌봄의 윤리는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아니라 돌봄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질로 평가된다.²³⁾ 돌봄의 질은 결과 자체보다 만남 속에서 인간이

21) Gineste et al. (2008), p. 46.

22) 송인실 (2021),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서의 인간중심돌봄 ‘휴머니티드’ 실천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1, 193~196쪽. 이 연구는 간호사들이 중증치매환자를 ‘의사소통 불가능한 대상’에서 ‘감정이 살아 있는 인격체’로 재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한다.

어떻게 대우받았는가의 문제로 드러나며, 존엄 역시 이러한 관계적 경험 속에서 구성된다.²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돌봄 윤리는 제도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대우받는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존엄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은 실천 방식뿐 아니라 평가 기준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휴머니티드는 이러한 돌봄 윤리를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구체화한다. 시선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며, 행위를 설명하고, 반응을 기다리는 행위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상대를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는 관계적 태도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노인을 기능 수행 능력으로 평가되는 객체가 아닌, 관계 속에서 존중받는 인간으로 경험하게 한다. 특히 관계적 돌봄 윤리는 돌봄의 목적과 과정이 통합되는 지점을 제시한다. 전통적 돌봄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면, 휴머니티드는 ‘존엄한 존재 경험’ 자체를 돌봄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는 노인 돌봄이 단순히 신체적·의료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 관계를 통한 존엄 회복으로 확장되는 실천적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계적 돌봄 윤리는 노년 돌봄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는다. 돌봄은 노인을 보호·관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 환경을 형성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3. 노년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휴머니티드가 제시하는 돌봄 관점은 노년 돌봄의 기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만든다. 기존 돌봄 체계는 기능 유지와 위험 관리라는 목표 아래 조직되어 왔으며, 돌봄 성과는 건강 상태나 기능 수준 같은 양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노년기 삶의 경험

23) Tronto (2013), pp. 19~21.

24) Ann Gallagher (2004), "Dignity and Respect for Dignity—Two Key Health Professional Values: Implications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Ethics*, 11(6), pp. 587~599. 깰러거는 돌봄 실천에서 존엄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는 두 차원으로 작동하며, 이 두 차원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노년 삶의 질은 단순한 건강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정체성 경험, 삶의 의미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휴머니티드는 이러한 한계에 구체적 응답을 제시한다. 돌봄 목표를 기능 회복이나 안전 확보로만 한정할 경우, 노인 삶에서 관계와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기 쉽다. 트론토가 지적하듯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의 취약성과 의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돌봄의 질은 무엇이 제공되었는가보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제공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휴머니티드의 네 가지 기둥은 이 관계의 질을 일상적 돌봄 장면에서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이다.

이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 평가는 기능 지표를 넘어 관계 경험과 삶의 의미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돌봄 환경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재가 돌봄에서는 노인이 자신의 생활 리듬과 공간 속에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해지고, 시설 돌봄에서는 표준화된 절차 속에서도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미시적 상호작용이 강조된다. 지역사회 돌봄에서는 서비스 체계를 넘어 관계망의 회복과 사회적 참여가 핵심 요소로 고려된다.

결국 노년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은 제도나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노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는가라는 인간관의 전환을 수반한다. 이것이 실현될 때 돌봄은 비로소 관리의 체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을 떠받치는 관계적 실천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특히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확대와 함께 돌봄 서비스의 양적 공급은 빠르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공적 노년 담론은 여전히 활동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노년을 재현하는 경향이 강하며, 한국의 돌봄 체계는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나 존엄 중심 돌봄으로의 질적 쇄신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존엄 중심 돌봄으로의 도입은 단순한 이론적 제안을 넘어 실천적 과제로 제기된다.

VI. 결론

본 연구는 기존 노년 담론이 노년을 기능 저하와 의존의 상태로 규정하며 돌봄을 관리 중심의 제도적 체계로 이해해 온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존엄 개념을 존재와 관계의 관점에서 재정립한 뒤 이를 돌봄 실천의 원리로 구체화한 휴머니티드 접근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년 담론 속에서 형성된 대상화의 구조를 살펴보고, 존엄 개념의 철학적 재정초를 논의한 후, 휴머니티드가 제시하는 인간관과 돌봄 원리가 노년 돌봄 이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주요 논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기능 중심 돌봄 담론은 노년의 존엄을 자율성과 수행 능력에 종속시키며 노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둘째, 존엄은 인간 존재 자체에 근거한 가치이자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되는 가치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취약성과 의존을 인간 삶의 보편적 조건으로 이해하는 관점 전환을 수반한다. 셋째, 휴머니티드의 네 가지 기둥은 이러한 존엄 개념을 일상적 돌봄의 미시적 상호작용 수준에서 구현하는 실천 원리로서, 돌봄을 처치 중심 행위에서 관계적 만남으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는 노년 돌봄 연구에 두 가지 이론적 기여를 제공한다. 하나는 존엄 개념을 기능 중심 이해에서 벗어나 존재와 관계의 차원에서 재정립함으로써, 노년 돌봄을 인간관의 문제로 전환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휴머니티드라는 구체적 실천 철학을 통해 이 이론적 전환이 실제 돌봄 장면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이다. 이는 돌봄의 질을 기능 지표를 넘어 관계 경험과 삶의 의미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확장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론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방향으로 연결된다. 장기요양 평가 지표는 신체 기능 수준 중심의 현행 체계를 넘어 돌봄 과정에서의 관계 경험과 삶의 의미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

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 종사자 교육은 단순한 기술 훈련을 넘어 인간관의 전환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노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휴머니티 돌봄의 의미와 함의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실제 돌봄 현장에서 휴머니티 접근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장 연구와 경험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노년 돌봄이 재가, 시설,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각 돌봄 환경에서 존엄 중심 돌봄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 역시 요구된다. 앞서 V장에서 확인하였듯, 한국 사회의 돌봄 체계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존엄 중심 돌봄으로의 질적 전환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수현이 지적하듯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고착화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은 제도 개선과 함께 노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동반할 필요가 있다.²⁵⁾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휴머니티 돌봄이 노년기 삶의 질, 관계 경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둘째, 돌봄 종사자의 인식 변화와 조직 문화, 제도적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다층적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한국적 돌봄 문화와 가족 중심 돌봄 규범이 존엄 중심 돌봄의 실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문화적·맥락적 연구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논의의 축적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의 삶을 존엄한 존재의 관점에서 다시 이해하고, 인간다운 돌봄의 조건을 제도적·실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25) 권수현 (2019), 1~5쪽.

참고문헌

- 권수현 (2019), 「노년의 삶과 정체성」, 『철학연구』, 149, pp. 1~28.
- 송인실 (2021),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서의 인간중심돌봄 ‘휴머니티드’ 실천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1, pp. 179~206.
- 이상우 (2022), 「노인의 돌봄 자원 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3), pp. 333~350.
- Estes, Carroll L. and Elizabeth A. Binney (1989), “The Biomedicalization of Aging: Dangers and Dilemmas,” *The Gerontologist*, 29(5), pp. 587~596.
- Foucault, Michel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Pantheon Books.
- _____ (1963), *Naissance de la clin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The Birth of the Clinic: An Archaeology of Medical Perception*, Vintage Books, 1973.
- Gallagher, Ann (2004), “Dignity and Respect for Dignity—Two Key Health Professional Values: Implications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Ethics*, 11(6), pp. 587~599.
- Gineste, Yves and Marescotti, Rosette (2019), 『휴머니티드 혁명』, 이인숙, 진영란, 이윤정, 임은실(편역), 대광의학.
- Gineste, Yves, Marescotti, Rosette and Pellissier, Jérôme (2008), “L’humanité dans les soins,” *Recherche en soins infirmiers*, 94, pp. 42~55.
- Kant, Immanuel (178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in *Kants gesammelte Schriften*, Bd. IV, Königlich Preuß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Kittay, Eva Feder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 Kitwood, Tom (1997), *Dementia Reconsidered: The Person Comes First*, Open University Press.
- Merleau-Ponty, Maurice (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 Nussbaum, Martha C.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Harvard University Press.

Taylor, Charles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ronto, Joan C.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

Abstract

**Reconstructing Dignity and Care in Old Age –
A Relational Anthropology of Humanitude**

Song, Insil (Korea Senior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Director)

In contemporary society, elder care has been organized around functional maintenance and risk management, a process that has reinforced the tendency to treat older adults as objects of administrative control.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is function-centered care discourse and theoretically explores a new care perspective centered on dignity. To this end, the study first analyzes how a function-centered view of the human person has been formed and structured within elder care discourse and institutional practice. Second, drawing on the work of Nussbaum, Taylor, Kitwood, and Tronto, dignity is reconceptualized as a value grounded in human existence itself while simultaneously experienced and confirmed through relational encounter. Third, the four pillars of Humanitude are interpreted as practical principles for enacting dignity within the everyday scenes of care. The study argues that the shift toward dignity-centered care is connected to concrete practical tasks—including the reform of care worker education and the redesign of long-term care assessment indicators—and that the quality of care must be expanded to encompass relational experience and the meaning of life.

Keywords: dignity, elderly care, Humanitude, person-centered care, super-aged society

논문 투고일: 2026년 03월 24일
심사 완료일: 2026년 04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6년 04월 21일